

# 어디서든, 오직 맛으로만... 야타나, 그리고 그랜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면 야타나가 꼭 그렇다.”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정치를 가리켜 했던 말을 펜폴즈의 수석 와인메이커 피터 가고는 화이트 와인 야타나에 빗댔다. 좋은 품질의 포도라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조달해 와인을 양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일반인이라면 고개를 가우뚱 거린다. 어디서든 좋은 포도를 구해다 쓰겠다니.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아서다.

근데 와인업계에서는 예전이든 지금이든 굉장히 의아하게 여길 일이다. 보통 좋은 와인이라면 특정 지역, 더 나아가 특정 포도밭의 포도로만 와인을 양



(왼쪽부터)야타나, 빈 389, 그랜지.



(왼쪽부터)그랜지, 빈 389, 야타나. /안상미 기자

조한다. 토양과 기후 등 포도나무를 둘러싼 테루아를 중시여기는 탓이다.

펜폴즈의 생각은 좀 달랐다. 포도가 어디서 자랐든 오직 맛으로만 평가한다. 호주 와인 역사를 바꾼 그랜지도, 야타나도 그렇게 탄생했다.

호주 국가대표와이너리 펜폴즈라고 하면 그랜지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오늘은 야타나를 앞 줄에 세웠다. 최고로 꼽을 만한 레드 와인보다는 최고로 꼽을 만한 화이트 와인을 만나게 몇 배는

더 어려워졌다.

야타나야말로 태생부터 가능성에 기댔고,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펜폴즈는 프리미엄 레드 와인인 그랜지의 성공 이후 프리미엄 화이트 와인 프로젝트에 돌입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양조할 만한 포도를 선별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 호주 최남단 서늘한 기후에서 천천히 익어 천연 산미와 다양한 향을 지닌 포도를 찾아내면서 가능해졌다. 와인

이름 ‘야타나(YATTARNA)’는 호주 원주민어로 ‘점차적으로’라는 뜻이다. 그만큼 길고 긴 과정을 거쳤다. 펜폴즈 와인은 대부분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다. ‘빈(BIN)+숫자’ 방식이다. 야타나를 가리키는 다른 품목명은 BIN 144다. 숫자가 보통 저장고 위치나 품종 등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과 달리 야타나는 144번의 연구 끝에 완성했다는 점에서 BIN 144가 됐다.

야타나 2019 빈티지는 타즈마니아와 아델라이드힐즈 등에서 자란 샤도네이로 만들었다. 감귤류에 시나몬, 캐모마일까지 다양한 향이 코를 사로잡더니 입 안에서는 신선한 과실과 둥근 산미에 미네랄이 조화를 잘 이룬다.

그랜지 역시 여러 지역, 다양한 포도밭의 포도로 만든다.

10명으로 구성된 와인메이커 그룹은 2주 동안 포도밭의 작은 구획을 말하는 파셀 약 1000곳에서 포도를 수확해 등급을 나눠 분류한다. A등급을 받은 포

도만 그랜지에 쓰이는데 비율로 보면 약 3% 안팎일 정도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만 선별된다고 보면 된다.

그랜지는 스타일에 맞춰 매년 최고의 포도를 골라 만들다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일관된 품질을 보이는 와인 중 하나로 꼽힌다. 첫 빈티지 이후 70년 동안 25개 이상의 빈티지가 평균가나 외부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슈아임 펜폴즈 브랜드 앰버서더는 “그랜지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향과 함께 숙성 잠재력이 40~50년 이상인 와인”이라며 “실제 그랜지 1983 빈티지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신선하게 생동감이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최고의 레드 와인과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펜폴즈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만들어낸 펜폴즈 샴페인과 함께 미국 나파밸리 카버네 소비뇽에 호주 쉬라즈를 블렌딩한 상식을 뛰어넘는 와인도 선보일 예정이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줄 ‘패배의 기록’

‘인간 실격’은 다섯번의 자살 시도 끝에 세상을 뜬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자전적 소설이다. 생을 비판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작가라서 그런지 이야기는 내내 음울하고 음산하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오오바 요조는 타인과 세상을 통해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며 저 스스로를 파멸의 끝으로 몰고 간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에게 이 소설을 추천하는 이유는 거울 치료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자신을 억까(억지로 까 내림) 하고 있다’고 여기는 중이거나, ‘지구 상에서 나보다 불쌍한 생명체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저자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못난 인간으로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독자에게 당신은 나처럼 살지 말라는 따뜻한 조언을 건넨다.

성적 학대를 가한 집안의 며슴과 허녀, 앞에선 입안의 허처럼 굴다가 뒤돌아서자마자 함담을 늘어놓는 주변인들과 부대끼며 성장한 탓에 요조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다. “인간의 삶에는 서로 속이면서 이상하게도 전혀 상처도 입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정말이지 산뜻하고 명량한 불신이 충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라고 털어놓을 정도.

사람이 두려운 요조는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자신을 감춰 광대가 되기로 결심한다. 가족들 앞에서 외국의 희극 배우를 우스꽝스럽게 따라하거나 학교 체육 시간에 철봉을 향해 달려가다가 모래밭에 엉덩방아를 찧는 등의 바보짓으로 사람들을 웃겨 그들의 호감을 산다.

불행한 기벽에 시달리며 흥청망청 삶을 이어나가던 요조에게 친구 호리키는 “네 난봉도 이



####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지음/민음사

쯤에서 끝내야지. 더 이상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테니까.”라고 충고한다. 요조는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네 아니야?’라며 속으로 발끈하지만 호리키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주인공은 늘 이런식으로 갈등을 회피한다. 불합리한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공격에 침묵한다. 그가 복수를 가하는 대상은 가장 만만한 저 자신이다. 요조는 술과 여자, 약에 점점 더 의지하며 지옥의 불구덩이로 천천히 걸어간다. 그가 망가지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가족들을 요조를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다.

‘신에게 묻겠습니다. 무저항은 죄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요조가 한 질문은 그의 삶이 왜 이토록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다. 책에는 신의 대답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절대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지 않았을까. “저항하지 않는 자, 인간 실격.” 191쪽. 9000원. /김현정 기자 hik1@

### 미국 공산주의라는 로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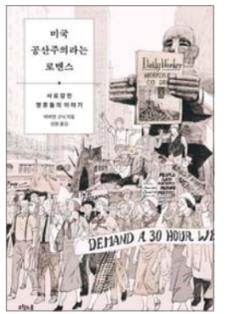
책은 미국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기록이자 저자 자신의 또 다른 자기 서사로, 새로운 저널리즘, 그리고 르포 문학의 탄생을 알린 역작이다.

90여년 전 뉴욕 브롱크스의 좌파 노동계급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비비언 고닉은 자신의 유년기를 가득 매웠던 찬란했던 세계가 한날 변방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충격에 빠진다. ‘바다 건너에

서 온 이름도 얼굴도 없는 악마’ 서부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보인 무지함과 적개심은 그를 더욱 강경한 빨갱이로 만들곤 했다. 고닉의 마음속에 체증처럼 얽혀 있던 적대적인 경험은 페미니즘 운동을 계기로 언어를 찾기 시작한다. 사회 정의라는 이상에 열정을 쏟았던 미국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

480쪽. 2만7000원.

비비언 고닉 지음/성원 옮김/오월의봄



###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미국인의 19%는 9·11 테러가 미국 내부에서 공모한 일이라고 믿으며, 40%는 연방 약물관리국이 고의로 암 치료제를 숨기고 있다고 여긴다. 현재도 미국인 15%는 미국 정·재계가 세계적인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는 사탄 숭배 소아성애자 집단 ‘큐어년’에 의해 조종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현실 부정론은 어디서부터 시

작됐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확산시키는 걸까.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현상은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며 진실을 숨기려는 역정보로 인해 생겨났다. 탈진실 사회의 구성원들은 과학 부정을 넘어 명백히 드러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 책은 역정보의 역사와 메커니즘을 파헤쳐 거짓의 민낯을 까발린다. 216쪽. 1만7000원.

리 매킨타이어 지음/정준희 해제/김재경 옮김/두리반



###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포퓰리즘적, 파시즘적 정책을 펼치며 경제와 정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책은 시민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인종 차별주의와 국수주의가 선거 정치를 지탱할 유일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파시스트의 입지가 확장됐다고 설명한다.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은 잃어

버린 민족 공동체를 재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의 모조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 특히 능란함을 보여왔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기성 정치에 반기를 들며 등장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문화 현상처럼 스며들고 브랜드처럼 만들어지는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을 파고드는 책. 160쪽. 2만2000원.

미켈 볼트 라스무센 지음/김시원 옮김/한울아카데미



##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스라엘, 미 대선일 레바논 폭격... 18살 로켓 파편에 사망 /사진 뉴시스  
▲“미국 떠나자” 트럼프 당선 후 ‘캐나다 이주’ 검색 5000% ↑

▲독일, 새 병역제도 도입하기로... “유럽 위험 상황에 대응”  
▲‘트럼프 폭풍’ 몰아친 뉴욕증시... 철강주 웃고 해운주는 울었다



▲트럼프 당선에 또 강달러, ‘슬픈 엔저’ 코너 몰린 디이시바  
▲일론 머스크, 1000억원 베딩 성공... 트럼프 재집권 최대 수혜자 /사진 뉴시스